

6 기획

마을버스 노선 변경안... 인·차도 구분 없어 위험 서울시 “자료 미비 반려”... 구의회 “변경안 재검토”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서울】동대문구가 추진하고 있는 동대문01 마을버스(회기역↔경희의료원)의 노선 변경안이 학생들로 혼잡한 먹자골목을 포함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해당 골목은 학교 앞에서도 대표적인 삼점 및 유동 인구 밀집 지역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동대문01의 경로는 경희의료원에서 출발해 경희대 앞 삼거리에서 먹자골목으로 우회전한 후 다시 좌회전 두 번을 거친 후 회기역으로 가게 된다. 현재는 경희대 앞 삼거리에서 바로 좌회전 후 회기역으로 향한다. 변경안은 지난 9월 동대문구 노선조정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서울시청에 제출된 상태다.

먹자골목 통과 노선 시청, “자료 미비로 구청 보완 지시”

동대문구청 교통행정팀 탁명익 주무관은 “회기동 주민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진행했다”며 “구체적으로는 홍릉 부근 주민이 회기역으로 바로 가는 편의 제고를 위해서고 해당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탁 주무관은 “경찰서, 마을버스 조합, 시내버스 조합, 동대문01 마을버스 기업(우리운송) 네 개 기관의 의견을 조율했지만 찬반이 나뉘긴 했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노선 변경안은 현재 서울시청에서 검토 중이다. 하지만 주민 의견과 해당 골목 안전 진단 등의 자료가 부족해 동대문구청 측에 자료 보완을 지시한 단계다. 요청한 자료는 우리학교 입장을 포함한 의견과 해당 골목 도로 폭 실측이다.

서울시청 버스정책과 노선팀 이관호 주무관은 “자치구의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할 때는 시청 승인 요청을 하게 돼 있지만 부족한 자료가 있어서 자료 보완을 해달라고 구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기에 자료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동대문01 마을버스 운영 회사 우리운송 측은 반대 입장이다. 우리운송 이상보 전무이사는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으며 도로 폭이 매우 좁아 해당 부분을 회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주로 학생이

이용하기에 더욱 위험하고, 배달 오토바이와 납품 트럭 등이 줄 서 있는데 마을버스 통행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선 변경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노선이 연장되면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더 길어져 이용자들의 불편만 늘어날 것”이라며 “차고지가 따로 없어 증차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의견 수용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폭 5m, 보차혼용 도로 먹자골목 학생 안전은 어디에

경희대로1길, 폭 5m 남짓한 이 좁은 골목은 주점과 음식점이 즐비한 상업 지역이다. 골목 1층엔 학생이 많이 찾는 술집, 2층엔 다양한 음식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불법 주차된 차량과 오토바이가 길가를 점령하고 있으며 주차금지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잡이 계속되고 있다.

만일 이 골목을 동대문01 버스가 통과한다면, 5m 폭의 도로에 3m 폭의 마을버스가 지나가게 된다. 이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보차혼용 도로이기도 하다.

먹자골목 인근에 거주 중인 장해리(관광·엔터테인먼트학 2023) 씨는 “삼거리 골목 안쪽은 좁은 곳에 식당과 술집이 몰려있어 평소에도 많은 사람이 몰린다”며 “마을버스가 이곳을 통과할 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에 위협이 돼 노선 변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동대문01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김연우(행정학 2023) 씨는 “등하교할 때 걸어가는 시간이 오래걸려 동대문01을 타지만 노선이 변경돼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면 버스를 타는 의미가 없다”며 “안 그래도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는데 증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배차 간격이 넓어진다면 줄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골목 상인 반응 역시 부정적이다. 무지개맥주 이진경 사장은 “노선 변경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이유에 “문을 열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소리나 먼지가 걱정”이라며 “안 그래도 사람이 많을 때가 있는데 버스까지 다르면 사



동대문01 마을버스 노선 변경안 경로다. 초록색 선이 기존 경로, 빨간 화살표가 변경 경로.

(사진=네이버 지도 캡처본)



늦은 밤 경희대로 1길을 오가는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하시언 기자)

람들이 통행하기 힘들어져 오히려 상권을 죽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 양꼬치 직원 역시 “아침에 물류를 나르는 트럭이 오는데 해당 부분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동대문구청은 일방통행과 주차단속 강화 등을 고려 중이다. 동대문구청 탁 주무관은 “현재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데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기 위한 주민 의견을 묻고 있다”며 “양쪽에 차량이 많이 주차돼 있어 단속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의원, “노선 재검토 중” 시청·구청·우리운송, “들은바없어”

노선 변경을 발의한 성해란 동대문구의원원은 “내년 3월까지 조정을 통해 해당 골목으로 버스가 다니지 않도록 노선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원은 “버스가 해당 골목으로 다니지 않게 상인회와 간담회를 열었다”며 “구청 교통행정 과장, 팀장, 동장과 함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당자인 동대문구청 탁 주무관은 “간담회를 열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그런 계획은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시청 승인을 못 받으면, 주민 편의를 위해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청 버스정책과와 우리운송은 간담회 개최 및 노선 재검토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서울시청 이 주무관은 “간담회 개최 여부와 노선 재검토에 관해 들은 적 없다”고 말했으며 우리운송 역시 “해당 내용에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